

## 업계 소식 News

### (주)고려비엔피

#### '제2회 양계대상' 후원



(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김태환)는 지난 9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군 한화리조트 휴닉스파크에서 열린 '제18회 전국양계인대회'에서 '제2회 양계대상'을 후원했다.

'양계 대상'은 대한양계협회 창립 51주년을 기념해 양계산업을 위해 헌신하신 양계인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양계인들과 더불어 살고, 더불어 성장하기를 노력하는 (주)고려비엔피가 후원했다.

### (주)유진바이오

#### 장내 무결성과 면역반응에 대한 세미나 개최

(주)유진바이오(대표이사 조승열)는 오는 10월 23일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 '오키드룸'에서 장내 무결성과 면역반응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족의 장건강과 면역활성

화 연구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및 축산 부산물 생산과 농장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수익성 창출방안 모색과 관련 주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 (031)214-0104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 올해로 15년째 사랑의 집짓기 활동 펼쳐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이사 이보균)는 지난 9월 19일 한국 해비타트와 함께 군산에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약 10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춘천, 군산, 진주 등의 현장에서 희망의 손길을 보냈으며, 지난 15년간 약 1,100명의 직원들이 총 12,000시간동안 참여하여 꾸준히 봉사하고 있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이보균 대표이사는 "기업은 가치창출이라는 목표 이외에도 직원과 고객에게 보람과 자부심을 주고, 긍정적인 가치를 사회에 전파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사랑의 집짓기 활동 외에도 문화재단 장학금 수여 및 미래의 동반자 재단 운영, 장애아동 재활승마 지원, 제주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 통한 가스 발전소 건설, 인엑터스 코리아를 통한 대학생 경제 교육 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 제2회 (주)카길애그리퓨리나 후원경주 개최 및 제1회 아시아 챌린지컵 후원경주 참여



(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지난 8월 30일, 31일 과천 '렛츠런 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2회 (주)카길애그리퓨리나 후원경주를 개최하고 제1회 아시아 챌린지컵 후원경주에 참여했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국내 경주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틀간 진행된 경주를 후원했으며, 국내 경주마 산업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열린 제1회 아시아 챌린지컵 후원경주는 한국경마 역사상 최초의 국제초청 경주로 올해는 싱가포르가 참가하게 되면서 기존 한일교류경주에서 아시아 챌린지컵으로 이름도 변경했다. 이번 경주는 참가국인 싱가포르에도 중계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경주마산업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주)건지

### 제15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수상



(주)건지(대표이사 곽춘욱)는 지난 9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동사에서 개발한 고상식 계사의 발명특허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청과 교육부가 주최하는 이번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주)건지는 자체개발한 고상식 계사의 기술혁신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고상식 계사는 기존의 깔짚이 깔려있는 바닥에서 사육하던 닭을 일정한 높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망 위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닭의 계분은 밑으로 떨어지고 스크레파에 의해 수시로 외부로 배출됨으로써 닭이 출하될 때까지 생산성 증대는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신개념의 사육시설이다.

## (주)연축

### '한국양계 CEO포럼' 출범

한국양계 CEO포럼은 지난 10월 1일 한정식 전

## 업계 소식 News



문점 진진바라 강남점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1968년 국내 최초의 축산전문지로 양계산업의 지표를 제시해온 월간 현대양계 이희훈 발행인이 주창한 한국양계 CEO포럼 발기인 대회에는 산·학·연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한국 양계산업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급작스러운 전남지역 AI발생 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 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 강석진 회장, 대전충남양계조합 최성천 조합장, 한국가금학회 손시환 회장 등 단체장들을 비롯, 계란자조금 안영기 관리위원장, 닭고기자조금 이홍재 위원장,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재홍 교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한재용 교수, 건국대학교 고태송 명예교수, (주)대호 이태일 회장, (주)발리코리아 양홍조 대표 등 단체, 학계, 관련산업계의 CEO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대양계 이희훈 발행인은 인사말에서 “한국양계 CEO포럼을 통해 한국 양계산업의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미래 양계산업의 청사진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참석 인사 소개시간에는 CEO들이 회사의 현황과 비전을 직접 설명했다. 이어진 단체장 현안발표 시간에는 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 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 강석

진 회장, 대전충남양계조합 최성천 조합장, 한국가금학회 손시환 회장, APPC 2014 조직위원장이인 한재용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단체소개와 현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시역학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재홍 교수는 올해 AI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김재홍 교수는 AI 상시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방역시책 수립에 농가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의 토론에 대해 참석자들은 AI, 방역시책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현실을 전하는 등 소중한 소통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양계 CEO포럼이 앞으로도 생산자, 유통인, 관련산업, 학계의 의견이 소통되고 한국 양계산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했다.

한편, 한국양계 CEO포럼은 한국양계산업 지도자들로 외연을 확대, 내년 2월경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 농축유통신문

#### 사무실 이전

농축유통신문은 지난 9월 15일자로 다음과 같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 이전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60-2  
그린빌딩 2층 202호

■ 대표전화 : 02-3401-7501

■ 팩스번호 : 02-3401-7502 